

An Analysis of Korean Modern Novels Using Mobility Perspectives : Focused on the Park, Kyung-ri's *Toji*

Park, Myeong-su

Instructor,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ms4031@snu.ac.kr

ABSTRACT

Objectives Park Kyung-ri's novel "Land" is a literary work that can b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a mobility paradigm. This work shows mobility factors due to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places, situations, and characters through the movement of places 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is work from this new perspective.

Methods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Park Kyung-ri's novel land from the perspective of John Erie's mobility paradigm. This article attempted to interpret literary works in various ways through the 'mobility paradigm'.

Conclusions Park Kyung-ri's novel "Land" was analyzed based on John Erie's mobility perspective and methodology. First, the main character, Choi Seo-hee, examined the movement and process according to the 'historic event' by applying it to the mobility element. Next, centering on the main character, Choi Seo-hee, the shape of the characters, the change of consciousness,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s, and the intersection of emotions were analyzed in connection with mobility factors. Finally, the issue of the view of life was also examined by linking Park Kyung-ri's novel "Land" with John Erie's mobility perspective, influence, and Yi-Fu-Tuan's topophilia perspective.

Keywords Mobility, Place, Complex Relationships, Character Formation, Life Consciousness, View of Nature, Park, Kyung-ri, *Toji*

<https://doi.org/10.23159/IJKC.2022.10.311.002>

Received : Jun. 30. 2022 ; Reviewed : Jul. 30. 2022 ; Accepted : Aug. 10. 2022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모빌리티(Mobility)적 관점을 적용한 한국 현대소설의 분석

- 박경리의 『토지』를 중심으로

박명수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존 어리(John Urry)의 모빌리티(mobility)
 3. 모빌리티(Mobility)를 통해 본 박경리의 『토지』
 4. 마무리와 과제
-
-

1. 들어가는 말

전 세계는 현재 코로나19(COVID-19)¹라는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과거에 경험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이동의 제한을 겪고 있다. 유럽은 국경을 폐쇄하고 북미와 남미 그리고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까지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출입을 제한하거나 닫고 있다. 특별히 북한은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길을 완전히 폐쇄하고 모든 왕래를 금지시켰다. 하루에도 수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자유롭게 왕래하다가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멈춰선 느낌이다. 매일 하던 일들, 매일 만나는 친구들, 매일 방문하던 커피숍 등 모든 것이 멈춰선 것 같다. 사실 전염병으로 인해 이동의 제한이 생기고 세상의 삶이 변한 것은 21세기만의 문제도 아니고 외국만의 문제는 더욱 더 아니었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문학 작품인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줄여서 코로나19(COVID-19)는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동물 기원의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다. 또한 이 바이러스 감염증은 코로나19 범유행 중 처음으로 발견되어 신종 감염병이 되었다. “2019-nCoV 급성 호흡기 질환”이라는 이름은 세계 보건기구(WHO)의 임시 명칭이었다(<https://ko.wikipedia.org>).

『토지』²에서도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이동케 한 주요 원인도 바로 전염병이었다. 1902년 7월에 전염병과 관련하여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호열자(콜레라)가 의주에서 처음 보고된 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9월에 서울로 확산되어 궁궐까지 침범한 사건이 있었다. 이 호열자(콜레라)로 인해 『토지』의 1부의 핵심 인물인 최 참판 덕의 윤씨 부인과 김서방 등이 죽게 되면서 극중 주인공인 ‘최서희’가 가족을 모두 잃게 되었고 결국 ‘간도’로 원하지 않는 ‘이동’을 하게 된다. 전염병이 당시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꿔 버리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이 이러한 부분을 주로 다룬다.

‘이동’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언급되는 단어 중의 하나이다. 매일 출퇴근하는 나와 주변의 사람들부터 지구 반대쪽의 소식까지 거리의 이동을 넘어 정치·사회적 소식과 정보, 돈, 생각, 물건 등이 오간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는 이처럼 단지 미시적 단위의 거리 ‘이동’을 넘어서 거시적 범주의 다양한 것들의 ‘이동’이 일어난다. 사회적 관계의 이동, 계층의 이동, 권력의 이동까지 그 범주가 크고 다양하다. 바로 존 어리(John Urry)는 이러한 삶의 다양한 ‘이동’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현상들과 쟁점들에 주목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인 ‘모빌리티(Mobility)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³ 이러한 패러다임은 사회를 고정적이고 정태적인 구조에서 유동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으로 보며⁴, 모빌리티(Mobility)를 단순한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동에 내포된 다양한 관계들의 의미와 실천을 의미하는 이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존 어리(John Urry)가 바라보는 모빌리티의 개념, 『모빌리티』의 구성을 소개하고 『토지』라는 작품의 중요 장면과 대화 속에서 ‘이동’에 내포된 다양한 관계와 장소의 의미 등을 존 어리가 주장한 모빌리티 관점에서 문학 작품의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행동 유도(affordance)와 이-푸 투안(Yi-Fu-Tuan)의 토포필리아(topophilia)와의 관계를 토대로 ‘생명 의식’의 존중이 자연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자연관에 근본적으로 내포된 의미인 ‘모든 것은 한 몸’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과 관점이 『토지』라는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읽고 쉽게 이야기를 압축한 『청소년 토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글에서 제시한 모든 페이지에는 『토지』를 따르기로 한다.

3 이민주(2016). “모빌리티, 사회를 읽는 새로운 패러다임,” *로컬리티 인문학* 15, 343-351.

4 Urry, J., 강현수·이희상 옮김(2014). *모빌리티*, 서울: 아카넷.

2. 존 어리(John Urry)의 모빌리티(mobility)

2.1. 모빌리티의 개념

모빌리티(Mobility)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존 어리(John Urry)의 ‘모빌리티’ 개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표현은 유사하지만 목적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⁵ 모빌리티(Mobility)란, 전통적으로 지리학이 말하는 이동의 개념과 유사하지만⁶ 이러한 전통적 의미에 ‘관계’의 의미가 덧붙여진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계’의 이동은 현 시대의 복잡한 네트워크로 형성된 관계가 구성하는 산물로 이해하고자 하는 새로운 관점이다.⁷ 다시 말해,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나 이주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과 이주를 통해 생겨나는 다양하고도 상호 의존적인 관계들을 포함한 것을 모빌리티(Mobility)라고 하였다.⁸

이렇듯 모빌리티의 의미는 이동에 내재한 상징과 관계를 통해 알 수 있고, 공간의 생산과 재생산의 맥락을 통해 이해되고 정치와 권력에 의해서도 구체화될 수 있다. 모빌리티는 이동할 능력, 이동하는 대상, 이동에 내재하는 사회적인 위치성(계급), 그리고 이동에 의한 지리적 변화 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⁹ 이런 관점에서 영어의 ‘Mobility’를 ‘이동성’으로만 번역하지 않고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존 어리가 명명한 ‘Mobility’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동은 의미를 수반하고, 이동은 행위자를 통해 모빌리티를 생산하기에 의미 없는 모빌리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경리의 『토지』에서 주인공 최서희와 주변 인물들은 하동 평사리-중국 간도(용정)-귀향 후 진주-서울(정확히 말하면 4부에서는 진주와 서울을 오가며 길상의 옥바라지를 하고 5부에서 최종적으로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정함)으로 이동의 경로가 나타나며, 이동하는 과정에서 작품 전체의 주인공인 ‘최서희’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관계, 사회적 계층관계, 갈등 관계 등 등장인물들의 의식 변화를 볼 수 있다.

5 모빌리티 개념과 관련해서는 번역, 학술지 등에서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강현수·이희상, 이희상, 윤신희·노시학, 이민주, 정은혜 등의 논의가 있다.

6 표준국어대사전의 사전적 의미로는 ‘움직여 옮김. 또는 움직여 자리를 바꿈.’으로 정의되고 있다.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7 정은혜(2020). “모빌리티 렌즈로 바라본 최부의 『표해록』,” *인문학연구* 42, 449-481.

8 우연희(2018). “모빌리티(mobility)와 민족의 이동: 정승박의 「균열의 흔적」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1(79), 269-287.

9 이용균(2019). “모빌리티가 여행지 공공공간의 사적 전유에 미친 영향: 터키 여행공간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2), 47-62.

나아가 식민지 시대의 이러한 한 가족의 모습에서 당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민족의 이동에서 버틸 수 있었던 ‘생명 존중’의 주제 의식까지 엿볼 수 있다. 또한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작가의 ‘자연관’이 잘 드러나는 데 이러한 자연관도 존 어리의 모빌리티 패러다임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존 어리는 모빌리티의 다차원적인 측면들 중 ‘모바일(mobile)’, 또는 ‘모빌리티(mobility)’라는 용어가 지닌 네 가지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모빌리티는 이동하거나 이동할 능력을 의미한다. 이때 이동한다는 것은 사물과 사람에게는 일종의 자산을 의미한다. 둘째, 모바일이라는 용어는 군중(mob)이라는 의미, 떼지어 몰려다니는 무리, 무질서한 무리라는 의미로도 사용한다. 군중은 어떤 경계 지역 내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한다는 이유 때문에 질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추적 감시가 필요하고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위로 또는 아래로의 사회적 모빌리티를 의미한다. 넷째, 장기적 의미로는 이민을 의미하며, 반영구적인 지리적 이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수평적 의미로 이동 중인 존재라는 의미이다. 특히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이동, 가뭄, 박해, 전쟁, 굶주림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가 간 또는 대륙 간 이동을 의미한다.¹⁰ 『토지』에서 일제의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중국 간도(용정)으로의 이동, 1902년 호열자로 인한 이동 등을 통해 주인공 최서희를 중심으로 주변 등장인물들이 고향을 등지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이동이 네 번째 의미인 장기적 이동의 의미와 유사하다.

2.2. 존 어리의 『모빌리티』의 구성과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특징

존 어리(John Urry)는 모빌리티를 새로운 연구 분야로 개척한 대표적 교수이며, 그 연구 결과로 2007년에 『모빌리티』를 출간하였다. 국내에서는 2014년도에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모빌리티』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3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모바일의 세계를, 2부에서는 이동과 통신을, 3부에서는 이동 중인 사회와 시스템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¹¹ 1부에서는 모빌리티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하고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이론과 연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2부에서는 단순한 이동 수단인 걷기부터 과학기술의 발전에

10 Urry, J., 강현수·이희상 옮김(2014). 앞의 책, 31-33.

11 존 어리의 저서 『모빌리티』의 구성은 역자인 이희상의 해제와 이민주의 논문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연구 목적에 맞게 재정리하였다.

따라 새롭게 등장한 이동 수단인 기차, 자동차, 비행기와 통신 수단인 모바일 통신 등이 인간의 삶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다양한 모빌리티 시스템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사회적, 공간적 문제, 즉 모빌리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 네트워크 자본, 만남, 장소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1부 1장에서 강조한 사람을 비롯한 물건, 교통 등 다양한 이동에 대한 논의, 2부 5장에서 최초의 기계화된 모빌리티 시스템인 기차를 중심으로 이동에서 한 장소와 장소사이의 공간 수축과 접근 가능한 공간 범위의 팽창에 논의, 3부 9장 모빌리티와 사회적 불평등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논의, 12장 장소 내부의 감정적 관계들과 다양한 종류의 수행들이 어떻게 그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 등을 토대로 박경리의 『토지』를 분석하였다. 이 문학 작품에서는 장소의 이동에 따라 등장인물들의 의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식민지 시대의 박해로부터, 호열자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모습들이 장면과 대화를 통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장소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등장인물들 간의 새로운 ‘복합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귀향하게 되는 일련의 이동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일련의 이동 과정들이 모빌리티적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존 어리(John Urry)는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열세 가지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방향을 중심으로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² 첫째, 모든 사회관계는 다소 먼 거리에서 서로 연관된 물리적 이동을 수반하는 다양한 연결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관계는 장소에 고정되거나 그 장소의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지(정주)하지 않고, ‘순환하는 실체(circulating entities)’를 통해 다양하게 구성된다.

둘째, 거리를 통해 조직된 사회생활을 만들어 가고 이러한 사회생활의 형태를 형성하는 다섯 가지 상호 의존적 모빌리티가 존재한다. 육체 이동(직장, 여가, 이주), 사물 이동(선물, 기념품), 상상 이동(인쇄 및 시각 매체), 가상 이동(컴퓨터, 인터넷), 통신 이동(편지, 전신, 전화) 등이다.

셋째, 물리적 이동은 연령, 성별, 인종적 특징을 지닌 육체를 수반한다. 육체는 다른 육체, 사물 그리고 물리적 세계를 다양하고 중첩적인 감각으로 접하게 된다. 존 어리는 육체 이동과 관련해 열두 가지 이동 형태를 제시하였다. ① 망명자나 난민의 이동, ② 사업이나 업무 출장, ③ 학생이나 어학연수생, ④ 의료 여행, ⑤ 군사적 이동, ⑥ 퇴직 후 여행, ⑦ 가족 초청

12 Urry, J., 강현수·이희상 옮김(2014). 앞의 책, 4-8.

이주, ⑧ 해외집단이주자의 이동, ⑨ 서비스 노동자의 이동, ⑩ 관광 여행, ⑪ 친구나 친지 방문, ⑫ 통근이나 직장 관련 이동 등이다.¹³ 넷째, 때때로 또는 특정 기간 동안 대면 연결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면 만남을 발생시키는 다섯 가지 의무가 있는데, 공식적 만남의 법률적·경제적·가족적 의무, 참여자가 실제 존재나 참석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갖고 만나 대화하는 사회적 의무, 계약 체결을 위해 타인과 공존해야 하는 의무, 이동과 접촉을 통해 장소를 직접 방문하고 경험해야 하는 의무, 특정한 시점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이벤트를 경험해야 하는 의무 등이 있다.

다섯째, ‘거리’는 18세기 이후 인구에 대한 통치성(governmentality)¹⁴을 행사하려는 근대 국가의 주권에 큰 문제를 야기했다. 19세기 초부터 통치성은 고정된 인구를 갖는 영토 외에도 영토를 수평적으로 가로질러 또는 영토를 넘어서 움직이는 이동 인구와도 관련된다. 질 들뤼즈(Gilles Deleuze)는 이를 좀 더 유동적이고 탈중심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통제 사회(societies of control)’라고 하였다. 여섯째, 사회과학은 사회생활을 자연과 사물의 세계와는 독립된 사회적 영역으로 순수한 것으로 다루어 왔지만 과학과 기술에 관한 연구는 순수한 사회적 정식으로 다룬 것은 사회과학에서 잘못된 시각임을 보여준다.

일곱째, ‘행동 유도(affordance)’¹⁵ 개념은 사람과 사물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중요하다. 행동 유도는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이고 환경과 유기체의 일부이다. 행동 유도는 특정한 세계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한 감각적 이동을 통한 환경과 유기체의 상호 관계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상호 관계는 결국 인간의 행동은 환경에 의해 끊임없이 행동을 유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자연과 인간은 분리될 수 없다. 작품 속 ‘천지만물을 떠나서 내가 있겠는가’라는 한 대목에서 『토지』에 투영된 작가의 자연관과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상호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여덟째, 다양한 연결 관계 속에서 인간과 결합된 사물에 초점을 두는 것은 시스템들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보행(걷기), 기차, 자동차, 비행기 등이

13 위의 책, 99.

14 자유주의부터 신자유주의에 걸쳐 근대 국가의 권력 형식을 분석했던 푸코와 통치성 학파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은, 신자유주의가 어떠한 목적에서 자유주의의 어떤 특징들을 계승하고 변화시켜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https://cairos.tistory.com/229>.

15 어포던스(Affordance)는 행동유도성이라고도 한다. 제임스 깁슨(James J. Gibson)이 1977년에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의 저서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어포던스는 세상과 행위자(사람이나 동물 등의 유기체) 사이에서 실행할 수 있는 행위적 속성을 말한다. 그의 의견을 보면 어포던스는 행위자와 환경 간의 관계, 혹은 이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행위의 가능성들을 뜻하기도 한다. <https://ko.wikipedia.org>.

포함된다. 모빌리티 시스템들은 상호 적응적인 관계에 있고,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함께 진화해 가는 공진화적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일부 시스템은 그 범위와 영향이 확장되고 증대되는 반면 일부 시스템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

아홉째, 사회가 더 부유해질수록 앞으로 나타날 모빌리티 시스템들의 범위는 점차 더 커질 것이고, 모빌리티 사이의 교차는 더 복잡해질 것이다. 이러한 모빌리티 시스템들은 장소들 간, 사람들 간 불균등한 입지와 접근을 만들어 낼 것이다. 열 번째, 모빌리티 시스템들은 다양한 공간적 범위와 속도로 사람, 사물, 정보를 순환시키는 과정을 통해 조직된다. 사람, 사물, 정보가 순환되는 구조화된 이동 경로가 지배적 순환 과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이동 경로는 말의 길, 보행길(걷기), 자전거길, 기차길(철도), 전화선, 공공 도로, 컴퓨터, 허브 공항 등의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열한 번째, 다양한 모빌리티 시스템들과 경로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시스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들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e)나 고착(lock-in) 현상이 나타나는 데 이를 더욱 체계화시킨다. 열두 번째, 모빌리티 시스템들은 전문지식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열세 번째, '부동적인'인 물질세계가 모빌리티 경험을 조직한다. 특별히 부동적인 플랫폼(송신기, 도로, 차고, 기차역, 안테나, 공항, 항구 등)의 상호 의존적 시스템이 이러한 모빌리티 경험을 더욱 조직화한다. 이동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계들은 다양한 시·공간의 부동성을 전제로 한다.

위와 같은 모빌리티(Mobility)의 개념과 패러다임의 특징을 중심으로 먼저 모빌리티(Mobility)를 이동할 능력, 이동할 대상, 이동에 내재하는 사회적 관계, 이동에 대한 지리적 변화 등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것이 문학 작품 속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¹⁶ 나아가 Massey가 열린 공간으로서 특별히 강조한 '글로벌-로컬'의 관계가 『토지』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로컬리티'¹⁷ 상황과 연계하여 살펴볼 것이다. 『토지』는 식민지 시대 배 또는 기차를 통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모빌리티 이동 경로를 통해 당대 식민지인의 로컬리티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모빌리티와의 연결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16 이용균(2019). 앞의 논문, 147.

17 장소의 유일성, 즉 로컬리티는 사회적 제 관계, 사회 프로세스, 경험과 이해가 함께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특정한 상호 작용과 상호 절합(節合)을 통해 구축한다.

3. 모빌리티(Mobility)를 통해 본 박경리의 『토지』

3.1. 『토지』의 구성과 내용

박경리의 대하소설 완간본『토지』는 전체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969년 처음 연재를 시작해서 1994년에 모두 끝마쳤을 정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된 작품이다. 이 작품의 지리적 배경인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는 최참판댁의 모델이 된 조참판댁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존 인물인 조참판댁을 취재하여 작품을 쓰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과 구조를 배경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 박경리와 이청준의 대화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문단에 나오기 전에 외가의 먼 친척뻘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즉 어느 시골에 말을 타고 돌아다녀야 할 정도로 광대한 토지가 있어 풍년이 들어 곡식이 무르익었는데도 호열자가 나돌아 그것을 베어 먹을 사람이 없어싸는 거예요. 이 <베어 먹을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 나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어요. 벼가 누렇게 익었는데 마을은 텅 빈 그런 풍경이 눈에 잡힐 듯 떠오른다 할까. 그 뒤 문단에 나와 작품을 쓰다가 문득 그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부터 그것으로 뭔가 작품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¹⁸

또한 2부의 배경이 되는 중국의 간도(용정촌)은 이 작품을 쓸 당시에는 중국과 수교 전이라서 직접 간도에 가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상상으로 지리적 배경을 설정하여 글을 썼다. 『청소년 토지』는 제1부~5부까지 있지만 모두 3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¹⁹ 1부~3부까지는 각 1권부터 3권으로 나누고, 다시 각 권 1장부터 5장까지 공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4부는 권이 없고 1장부터 5장까지 있고, 5부는 1, 2권으로 나뉘지고 각각 5장까지 있다. 보다 세부적인 제목은 다음과 <표1>과 같다.

18 김치수(1982). *박경리와 이청준*, 서울: 민음사.

19 박경리의 『토지』는 1994년 전 5부 16권으로 솔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후 박경리 문학연구회가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을 받아 10년 동안 이미 출간된 작품과 원본을 대조하여 바로 잡고 유실된 원고는 추적하여 복원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본작업에 힘쓴 결과, 2012년 8월 15일, 결정판 『토지』 5부 20권이 마로니에 북스에서 출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완간본 20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된 『청소년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청소년 토지』를 중심으로 토지의 구성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 필요한 부분은 완간본을 중심으로 일부 보완을 하였다. 이하 『토지』는 모두 『청소년 토지』를 말한다.

〈표1〉 박경리 『청소년 토지』의 ‘부, 권’, 장‘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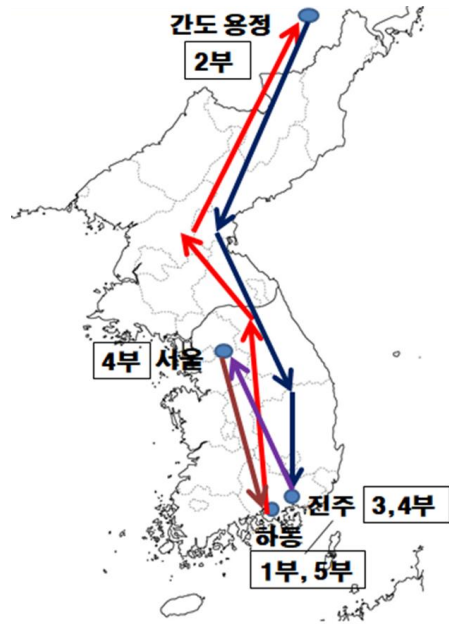
부	권과 장	장의 구성(장별 제목)	
1부	총3권 1장~5장	1권	1장 어둠의 발소리, 2장 추적과 음모
		2권	2장 일부, 3장 삶과 죽음의 길목
		3권	4장 역병과 혁명, 5장 떠나는 자, 남는 자
2부	총3권 1장~5장	1권	1장 간도의 비바람, 2장 사랑과 증오
		2권	2장 일부, 3장 지리산 사나이들, 4장 용정촌과 서울
		3권	4장 일부, 5장 세월을 넘고
3부	총3권 1장~5장	1권	1장 만세 이후, 2장 어두운 계절
		2권	2장 일부, 3장 태동기, 4장 긴 여로
		3권	4장 일부, 5장 젊은 매들
4부	1장~5장	없음	1장 삶의 형태, 2장 귀거래, 3장 명희의 사막, 4장 인실의 자리, 5장 악령
5부	총2권 1장~5장	1권	1장 혼백의 귀향, 2장 운명적인 것, 3장 바닥 모를 늪 속으로
		2권	4장 순결과 고혈, 5장 빛 속으로

3.2. 『토지』에 나타난 이동과 모빌리티적 요소

『토지』에서 1부부터 5부까지의 이동 경로는 주인공 최서희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1부가 시작되는 시기인 1897년에 최서희가 태어난 곳인 하동 평사리에서 시작하여 2부에는 전염병, 일제의 박해를 피해 간도로 이동하였고 3부에는 다시 고향 근처인 진주로 귀향하였다. 그리고 4부에서는 옥바라지를 위해 진주와 서울을 왕래하다가 1945년 해방을 맞으면서 서울에서 고향인 하동 평사리로 이동한다. 이러한 주인공 최서희의 이동 경로를 통해 모빌리티적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 이동 경로는 〈그림1〉과 같다.

〈그림1〉은 주인공 최서희의 이동 경로를 각 부를 중심으로 그린 것이다. 4부에서 최서희는 부분적으로 서울과 진주를 오가는 지역적 이동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지만 1부부터 5부까지 작품 전체의 이동에서는 존 어리가 주장한 모빌리티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박해와 전염병을 피해 더 나은 삶을 향해 이동한 것, 국경을 넘어 간도로 이동하면서 장소별로 등장인물들의 형상화, 의식의 변화 그리고 등장인물 간의 복합적 관계와 감정의 교차 등이 나타나고 있다. 제1부 경상도 하동의 평사리에서는 모빌리티의 이동에 영향을 준 복합적 환경요인이 나타난다. 1902년 유행한 호열자(콜레라)가 이야기의 전환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의 중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은 이동에 호열자(콜레라)가 중요한 배경이 된다. 1902년 당시 콜레라 유행에 의해 주인공 최서희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최 참판가의 윤씨 부인을 비롯해, 마름 김서방, 최 참판가 침모 봉순네, 이용의 처 강청덕 등이 사망하면서 주인공 최서희와 이용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전염병인 콜레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마을은 흉년까지 겹쳐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이를 피해 주인공인 최서희와 주변인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 간도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존여리의 ‘모빌리티 전환’으로 볼 수 있다.



<그림1> 주인공 최서희의 이동 경로

최참판댁의 일상은 무너졌다. 마을의 일상도 무너졌다. 불안과 공포는 검은 구름처럼 마을을 덮치고 있었고, 호열자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모습으로 마을 곳곳을 점령하고 있었다. 병은 가난한 자와 부지를 가리지 않았다. (...중략...)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다는 등, 미처 숨도 끊어지지 않은 병자를 끌고 가서 불에 태워 죽인다는 등, 무서운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평사리에서는 영팔이 막내딸이 죽고 임이네의 두 아들이 죽었으며 최참판댁에서는 김 서방이 죽은 후 봉순네가 죽었다. 그 다음 희생자는 윤씨 부인이었다. 길상은 밤길을 달려 읍내까지 의원을 부르러 갔다. 그러나 읍내에 가서 길상이 들은 소식은 의원도 죽었다는 것이다. 윤씨 부인은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토지』 1부 3권, 25~27쪽.)

1903년의 흉년은 지독한 것이었다. 경상도 거리마다 굶어죽은 시체가 발길에 채인다는 소문은 사실이였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얼굴이 누렇게 부푼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고, 부자들은 굶주린 사람들이 쳐들어와 곡식을 빼앗아갈까봐 겁을 내었다. 곡식을 팔거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부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다.

(『토지』 1부 3권, 67쪽.)

한 순간에 집안 어른들을 모두 잃고 고아 신세가 된 최서희는 의지할 곳 없는 평사리에서 자신의 집과 재산을 차지한 조준구 내외를 죽이는 데 실패하고 결국 의병활동을 하던 길상,

김훈장, 이용, 김영팔과 함께 간도로 탈출을 하게 된다. 주인공 최서희와 주변 인물들 간의 복합적 관계가 간도로의 이동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또한 당시의 사회, 문화, 제도, 사상이 너무나도 정주(定住)의 세계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이러한 호열자와 같은 질병에 제대로 예측하고 예방할 수 없었으며, 대처할 수도 없었다. 전혀 대처할 수 없었던 현실에서 이동의 주체인 최서희와 이용 등은 보다 더 나은 삶의 이동을 위해 이동의 대상인 간도(용정)으로 이주를 한 것이다. 즉 등장인물들 간의 복합적 관계, 어쩔 수 없이 더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장면에서 존 어리의 ‘모빌리티 패러다임’이나 ‘모빌리티 전환’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부에서는 존 어리(John Urry)의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하나인 ‘물리적 이동은 연령, 성별, 인종적 특징을 지닌 육체를 수반하고 육체는 다른 육체, 사물 그리고 물리적 세계를 다양하고 중첩적인 감각으로 접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또한 때때로 또는 특정 기간 동안 대면 연결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간도(중국 용정)에 정착한 최서희는 길상과 공노인의 도움을 얻어 두류와 토지 거래로 거부가 된다. 하동 평사리에서 부모님이 방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이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의 이동에서도 다양한 사회관계에 영향을 준다. 또한 물리적 이동은 물리적 세계를 다양하고 중첩적인 감각으로 접하게 되고 새로운 감정의 발로로 최서희와 길상이 결혼하게 되고 두 아들을 얻게 되는 결과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훗날 두 아이들과 함께 귀향을 하게 되는 이동의 연결을 보여준다. 즉 이동하는 주체가 있고 이동하는 대상이 있고 이들이 상호관계를 맺어가는 부분은 존 어리가 주장한 ‘모빌리티(Mobility)’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용정촌 사정에도 밝아진 공노인은 서희에게 좋은 길잡이였다. 윤씨 부인이 농밭 대신 괴어두었던 막대기 속에는 금과 은이 들어 있었는데, 공노인은 그것을 팔아 서희에게 삼천 원이라는 큰 돈을 만들어주었다. 청나라 말을 잘하고 아는 사람도 많은 공노인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또 그 돈 삼천 원을 굴리는 데 도움을 준 것도 공노인이었다. 서희는 그 돈으로 우선 집을 장만하고 큰 공간을 마련한 뒤, 곡식을 사들여 공간에 쌓아두었다. 곡식이 귀해져서 값이 오를 무렵이면 공간 문을 열고 곡식을 팔았다. 이런 식으로 서희는 삼 년 동안 삼천 원을 두 배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서희의 정확한 판단력 때문에 이렇게 재산을 늘릴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도와준 공노인과 손발이 되어 움직여준 길상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토지』 2부 1권, 35~36쪽.)

www.kci.go.kr

길상은 일어서서 전등을 켜다. 부신 눈에 흰 버섯 같은 두 개의 얼굴이 보인다. 작은 얼굴은 태어난 지 육개월 된 둘째 아들 윤국이의 것이고 큰 얼굴은 아내의 것이다. 환하게 불을 켜는데도 아내와 아이는 깨지 않고 곤하게 잠들어 있다. (『토지』 2부 3권, 54~55쪽.)

존 어리의 ‘모빌리티(Mobility)’에서 12장에는 장소 내부의 감정적 관계들과 다양한 종류의 수행들이 어떻게 그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 연구의 서술이 있다. 『토지』 3부에서 최서희는 용정에서 거부(巨富)가 되어 귀향을 한다. 식민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타국에서 성공하였기에 고향인 하동 평사리로 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하동 평사리의 집을 가지 않고 고향 근처인 ‘진주’로 돌아온다. 그것은 평사리의 최참판댁 집에 대한 어린 시절에 겪은 고독하고 비참한 기억 때문이었다. 이렇듯 한 장소 내부에서의 복합적 감정들이 때로는 ‘이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주인공 최서희도 바로 이러한 복합적 감정들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토지』 3부에서 나타난 최서희의 귀향의 이동 과정에서 존 어리의 ‘모빌리티 패러다임’은 단순한 ‘이동’의 패러다임이 아닌 ‘감정의 복잡성’, ‘관계의 복잡성’을 나타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평사리 그 집에 대한 최서희의 태도에는 처음부터 석연치 못한 것이 있었다. 간도에서 조선으로 돌아온 즉시 그 집을 찾아갔어야 했다. 문서로는 조준구의 소유로 되어 있었어도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는 최서희의 집이었다. 그러나 최서희는 평사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았다. (...중략...) 십육 년 동안 나서 자란 그 집에 대한 기억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 행복하기는커녕 고독하고 비참한 기억뿐이었다. 다섯 살 때 생이별한 어머니의 얼굴은 기억 속에서도 희미하였고, 아버지 최치수는 딸에게 애정을 보인 일이 없었다. (『토지』 3부 1권, 91쪽.)

박경리의 『토지』에서는 이동의 매개로 ‘마차’가 등장한다. 그런데 이 ‘마차’는 주인공 최서희와 길상이 사랑과 증오의 복합적 감정의 매개가 되며, 용정에서의 삶을 청산하여 귀국할 때 감정의 선을 드러내는 중요한 매개이자 역할을 한다. 이러한 소설 속의 교통수단이 존 어리의 ‘모빌리티(Mobility)’에서는 중요한 패러다임의 한 축이 된다. 존 어리는 다양한 연결 관계 속에서 인간과 결합된 사물에 초점을 두는 것은 시스템들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에는 보행(걷기), 철도, 자동차, 비행기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모빌리티 시스템들은 상호 적응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부 시스템은 그 범위와 영향이 확장되

고 증대되는 반면 일부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소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철도에 의한 모빌리티 시스템은 기계화된 새로운 이동 선로를 통해 여러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연결성을 수반한다.²⁰

이와 마찬가지로 『토지』에 나오는 ‘마차’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최서희와 길상이 결혼까지 가게 되는 새로운 연결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향을 한달음에 달려가고자 하는 주인공 서희의 복합적 감정이 그대로 ‘마차’라는 사물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다음 날 아침 두 남녀는 여관을 나와 함께 길을 걸었고 마차에 올랐으나 성난 얼굴로 서로 외면했다. 그들은 더 깊은 괴로움을 안고 용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 절망과 희망이 엇갈리는 마음은 끝없이 방황하면서. 그러나 이들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왔다. 그것은 용정을 향해 달리던 마차가 어떻게 되어 그랬던지 뒤집힌 사건이다. 계곡 사이의 좁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달리던 마차가 돌연 뒤집히면서 계곡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다. (『토지』 2부 1권, 170~171쪽.)

서희는 서둘렀으나 침착했다. 유모가 환국이를 안고 먼저 마차에 올랐다. 다음은 서희가 윤국이와 함께 마차에 올랐고, 마지막으로 안자가 아이들 옷이 든 가방을 들고 마차에 올랐다. 서희는 마차를 에워싼 사람들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마차는 큰길로 나가 달리기 시작했다. 마치 활시위에서 떠난 화살처럼 속력을 내달려가는 것이었다. (『토지』 2부 3권, 170쪽.)

존 어리는 자동차 시스템에서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자기생산(*autopoiesis*)이라고 하였다. 자기 생산은 필요한 요소를 스스로 생산해 환경에 적응, 분화, 작동하는 자기 확장적(*self-expanding*)시스템이다. 많은 사람이 (개인)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도시나 도로 등 공적 공간 속에서 사적 공간이 등장한다. 집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때론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도시환경으로부터 운전자를 분리한다. 전자적 및 기계적 장치로 구성된 자동차의 내부에 앉은 운전자는 안전함, 안락함, 자유로움 그리고 반대로 구속감 등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와 친밀한 사회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²¹

20 우연희(2018). 앞의 논문, 278.

서희는 자동차를 대절해 안자와 함께 평사리로 가고 있었다. 달리는 차창 밖의 하늘은 맑고 높았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무르익고 있었다. 사람살이는 어둡고 각박했으나 가을은 찬란하고 자연은 풍요로웠다. 새들은 자유롭고 풀꽃이며 코스모스는 평화스러웠다. 다만, 인간만은, 조선에 태어난 사람들만은 날로 찌들어가고 있었다. 아니, 어디 조선뿐이랴, 조선 사람뿐이랴. (『토지』 5부 1권, 50쪽.)

‘사람살이는 어둡고 각박했으나 가을은 찬란하고 자연은 풍요로웠다. 새들은 자유롭고 풀꽃이며 코스모스는 평화스러웠다.’라는 장면 서술에서 자동차의 내부에 앉은 최서희의 안전함, 안락함,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구속감 등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와 ‘다만, 인간만은, 조선에 태어난 사람들만은 날로 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서술에서는 최서희의 어두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렇듯 최서희가 차 안에서 느끼는 복합적 감정이 존 어리의 모빌리티적 요소인 자기생산(*autopoiesis*)의 한 장면의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3.3. 『토지』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과 모빌리티적 요소

『토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1부(1897~1908년)의 역사적 사건은 동학농민운동, 공사노비제폐지, 갑오개혁, 을미사변, 1902년 콜레라 유행, 을사보호조약 등이 있으며, 제2부(1911~1918년)의 역사적 사건은 간도이주, 신민회활동, 한일합방, 안락105인 사건, 토지조사사업 등이 있다. 또한 제3부(1919~1929년)의 역사적 사건은 3.1운동, 사이토 총독저격사건, 물산장려운동, 관동대지진(간도대학살), 형평(사)운동, 이광수와 〈민족개조론〉 등이 있고, 제4부(1930~1939년)의 역사적 사건은 광주학생사건, 만보사사건, 만주사변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5부(1940~1945년 8월 15일)까지의 역사적 사건은 창씨개명, 국가총동원법, 조선사상범 예비구금령, 정신대, 징용제, 징병제 등이 있다.

이렇듯 『토지』에서 역사적 사건은 상당히 많이 등장함에도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²² 역사적 사건은 이야기를 전개하는 배경의 역할만을 하고 작품에서 중점을 둔

21 Urry, J., 강현수·이희상 옮김(2014). 앞의 책, 25-27.

22 실제로 작가도 역사적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닌 등장인물들의 의식의 변화, 즉 인간의 보편성 탐구가 작품 전체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지난 시대 한민족이 겪은 고난의 삶을 생생하게 형상화해 낸 점에서 『토지』는 역사소설의 기준에도 적용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보편성

것은 ‘등장인물’의 의식 변화이다. 그러나 존 어리의 모빌리티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는 모빌리티의 중요한 요소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의미 있는 연결이 됨을 알 수 있다. 존 어리가 주장하는 장소(place)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공간(space)’와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다. 장소는 고정적, 폐쇄적, 국지적, 특수적, 구체적 속성으로 설명되고 이들은 상호 영향을 주는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변화한다.²³ 또한 지리적, 역사적 토대 위에서 형성된 특정한 장소는 다른 장소와 차별되는 장소의 특수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²⁴ 『토지』에서는 역사적 사건인 한일합방과 관련한 내용에서 모빌리티적 요소를 엿볼 수 있다. 즉 모빌리티에서의 ‘장소’는 지리적 및 역사적 토대 위에서 형성된 특정한 장소인데 이 작품에서 언급한 ‘간도’와 우리 땅인 ‘한반도’에 대한 내용에서 바로 이러한 모빌리티적 요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간도도 옛날에는 우리 땅이었고 우리 부모들이 피땀 흘려 일군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우리 땅이 아니어서 청나라 사람들한테 가지가지 괴롭힘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청나라 사람으로 귀화하면 땅을 주겠다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청나라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어떤 괴로움, 어떤 설움보다도 조선인이 아니라는 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조선 글을 쓰고, 나는 조선말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조선 오백 년 동안 임진왜란을 겪고 병자호란도 겪었지만 이렇게 송두리째 나라를 잃은 일은 없었습니다. 나라를 빼앗은 왜놈들은 이제 우리의 문화를 빼앗고 우리 민족을 얼을 뺏을 것 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편지를 쓰기 위해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기 위해 글을 배우는 것입니다. 알아야만 싸울 수 있습니다. 알아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 2부 1권, 58쪽.)

존 어리는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두 번째 특징으로 거리를 통해 조직된 사회생활을 생산하고 그 형태를 형성하는 다섯 가지 상호 의존적 모빌리티가 있다고 하면서 통신 이동으로

에 대한 탐구로서 더 큰 성과를 얻고 있다.

²³ Urry, J., 강현수·이희상 옮김(2014), 앞의 책, 44.

²⁴ 위의 책, 44-45.

편지, 전신, 전화를 언급하였다. 『토지』의 2부 1권에서는 신민회의 안약 105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신민회 회원인 선배가 삼원보에서 보내온 편지를 앞에 놓고 송장환은 깊은 생각에 잠긴다. 이시영, 이동녕 등 신민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삼원보에 모여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송장환도 잘 알고 있었다. 군사훈련도 같이 하는 학교를 세워 독립운동을 할 청소년들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 등도 알고 있었다. 조선에서 활동하는 신민회 회원 육백 명이 체포된 것도 알고 있었다. (『토지』 2부 1권, 92쪽.)

이 글에서 ‘편지’라는 통신 이동을 통해 어떻게 사회가 조직되고 사회생활을 생산하고 그 형태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당시 신민회라는 민족 단체는 통신 이동의 하나인 ‘편지’를 통해 조직의 사회생활이 ‘독립운동’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신민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만주 삼원보라는 먼 거리에서 어떻게, 누가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존 어리의 모빌리티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존 어리의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네 번째 특징으로 ‘때때로 또는 특정 기간 동안 대면 연결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대면 만남을 발생시키는 다섯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 하나로 비교적 공식적 만남에 참석하는 법률적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토지』 5부 2권의 ‘대화’에서 존 어리의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특징 중 ‘특정 기간 동안’을 식민지 시대라는 특정 기간으로 연결해 볼 수 있고, 특정 기간 동안 대면 연결로 볼 수 있는 일제의 강제 징용이 당시 일제의 ‘법률적(제도적) 의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이동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존 어리의 모빌리티와 연결해 볼 수 있다.

“그보다 윤국이가 학병으로 나갔으니 걱정이 크겠소.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 뿐이요”

“고맙소.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지리산에 피신할 수도 있었는데, 어찌 그 생각은 안했는지. 지금 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다는 말을 들었소.” (『토지』 5부 2권, 57쪽.)

“실은 징용에 끌려갔다가 도망쳐왔습니다”

“머라고!”

“예, 징용에 갔다가.”

www.kci.go.kr

“어디로 갔는데?”

“일본 북해도까지,”

“거기서 어떻게 도망을 쳤소?” (...중략...)

탄광에서는 매일 매일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는 것이었다. 일하지 못하는 병자는 숲 속에 내다버렸고, 굶주린 짐승들 밥이 되었다는 것이다. (『토지』 5부 2권, 107쪽.)

위 대화에서 ‘학병’과 ‘징용’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학병’을 통해 ‘징병제’를, ‘징용’이라는 단어를 통해 ‘징용제’라는 강제적 의무 제도가 있었고 이러한 ‘법률적(제도적) 의무’가 모빌리티 패러다임에서의 어쩔 수 없는 법률적 이동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징병제’와 ‘징용제’는 당시 우리 민족에게는 부정적 제도였고 수많은 희생을 강요받았던 제도이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만남 또는 이동도 모빌리티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토지』 2부에서는 평사리의 농민들의 대화 중에 당시 일제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땅을 빼앗긴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것이 친일파의 땅으로 둔갑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 농민들에게 ‘괴상한 측량 기구를 둘러메고 땅을 조사하겠다고 산산골골에 스며들어온 왜놈 양복쟁이들’을 ‘칼 차고 총 멘 순사, 헌병’ 보다도 더 두려운 대상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여기서 토지조사사업이 당시 일제가 시행한 하나의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로 인해 수많은 우리 민족이 터전을 잃게 되고 간도나 만주로 이동을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는 존 어리가 주장한 모빌리티 패러다임에서 가난, 굶주림, 박해로부터 더 나은 삶을 향해 이동한 모빌리티적 요소가 문학 작품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토지조사란 무슨 놈의 낫도깨비냐. 토지조사는 조선인의 땅을 빼앗고 땅에 대한 세금을 물리며 조선인의 동정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 괴상한 측량기를 둘러메고 땅을 조사하겠다고 산산골골에 스며들어온 왜놈 양복쟁이들. 그들이 칼 차고 총 멘 순사, 헌병보다 더 무서울 줄이야. 아이고오. 하느님 맙소사! 땅을 치고 통곡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다.

(『토지』 2부 2권, 40쪽.)

존 어리의 ‘모빌리티(Mobility)’에서 12장에는 장소 내부의 감정적 관계들과 다양한 종류의 수행들이 어떻게 그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 연구의 서술이 있다. 『토지』의 역사적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건을 겪고 인간의 복합적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 나온다. 나아가 작가는 이러한 복합적 감정을 극대화하여 우리 민족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건임을

강조한다. 관동이라는 지역에서 대지진(간도대학살)을 겪고 귀국길에 오른 서의돈과 선우신은 이 끔찍한 사건을 반복하여 회상하며, 작가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조선인 살육의 현장’으로 표현한다.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다. 동경, 요코하마, 미우라 반도를 휩쓴 지진, 그 무시무시했던 재난이 일본인들에게 악몽이었다면 재일조선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조선인 살육의 현장이었다. (『토지』 3부 2권, 49쪽.)

존 어리는 그의 저서 ‘모빌리티(Mobility)’ 3부 9장에서 모빌리티(Mobility)와 사회적 불평등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이동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한 관계를 목격하곤 한다. 『토지』의 시대적 배경이 된 구한말과 식민지 시대에서의 ‘신분제’ 그리고 현대 사회는 이러한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이동과 정보에 의한 지배적 순환 과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토지』 작품 내에서 ‘신분제’와 관련된 대화와 서술 그리고 ‘신분제’ 혁파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인 ‘형평사운동’과 관련된 서술은 존 어리의 모빌리티적 요소의 한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양반 죽이려는 동학군들, 아직은 다 죽지 않았어요. 하여튼 돼먹질 않았소. 갑오년(1894년)에 노비제도 없앤 것부터가 잘못이요. 천한 종놈들한테 아양 떠는 꼴이라니!”

“지금이 어느 세상이라고 그 따위 말을 하나” (『토지』 1부 1권, 53쪽.)

“광림학교 교장하고 몇몇 사람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백정 열다섯 명을 옥봉교회에 나가도록 했더란다. 그러나 어떻게 됐겠나? 몇몇 사람이 한사코 반대를 한거지. 백정하고 한자리에서 예배를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고,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하느님 앞서는 모두 같이 예배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 서로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교회가 두 쪼가리로 가라졌는데, 많지도 않은 교인이 두 곳으로 갈라져 따로 예배를 보니 그 틈새에 끼인 백정들 심정이 기가 막혔을 기라. 결국에는 사십구 일만에 백정들이 물러날 수밖에. 내 장인 말로는 피눈물 뿌리고 물러났다 그러더마. 피눈물을 뿌리고, 그렸을 기다. 이제는 사람 축에 끼는가 부다 하고 희망에 부풀었는데 백정은 예수도 믿을 수 없었던 기지.” (『토지』 3부 1권, 71쪽.)

현재 관수의 아들은 아무도 몰래 부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갖은 짓을 다 해보았으나 진주에서는 아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작년 오월 진주에서 만들어진 형평사는, 자식을 공부시키겠다는 백정과 그것을 철저히 거부하는 시민들 간 싸움의 결과였다. 백정의 사위 관수는 물론 앞정서 싸웠는데 하여간 인간 대접을 받고자 한 백정들 쪽이 힘이 커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형평사 운동은 바야흐로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토지』 3부 2권, 130쪽.)

위 작품 속에서 “노비제도 없앤 것부터가 잘못이오.”, “천한 종놈들한테 아양 떠는 꼴이라 니”, “백정은 예수도 믿을 수 없었던 기지.”, “인간 대접을 받고자 한 백정들” 등과 같은 대화는 당시 사회적 계층관계를 보여 주고 있는 대화문이다. 그럼에도 1920년대 전반을 넘어서면서 점차 수직적 계층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존 어리가 주장한 모빌리티 패러다임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계층의 이동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4. 『토지』의 ‘생명 존중’의 자연관과 행동 유도(affordance) 모빌리티

『토지』는 이렇듯 식민지 시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모빌리티 이동을 작품 곳곳에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1부와 2부, 2부와 3부를 넘어가면서 각각 모빌리티 이동을 더 잘 드러내고 있다. 당대의 식민지인의 ‘로컬리티’²⁵ 상황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나타냄으로써 한국인의 자연관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인간에게 자연은 여러 가지 편안함과 유용함을 제공받아왔다. 인간이 환경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인문지리학자 이-푸 투안(Yo-Fu-Tuan)은 공간과 인간의 정서적 관계에 특히 관심을 가졌다. 그는 모든 민족에게 환경은 단순한 자원을 넘어 깊은 정과 사랑의 대상이자 기쁨과 확실성의 원천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인간이 장소와 관련을 맺는 정서적 방식과 태도를 ‘토포필리아(topophilia)’라고 하였다.²⁶

25 모빌리티적 관점에서의 ‘로컬리티’ 축자적 의미로는 ‘장소’라는 의미이지만 일반적으로 모빌리티에서의 ‘로컬리티’는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장소’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26 토포필리아란 ‘토포(topo), 즉 장소’와 ‘필리아(philia), 즉 사랑’의 합성어로 장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의 정서적 표현을 의미한다. ‘토포필리아(topophilia)’는 자연이나 장소가 단순히 유익함을 주는 곳이라는 의미를 넘어 어떤 숫자라도 환산할 없는 ‘정서적 유대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명희·정영란(2020).

존 어리도 ‘토지’와 ‘경관’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토지는 기능적 작업의 장소이고, 거주한다는 것은 생산적-비생산적인 활동이 서로 조화된 삶의 참여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삶의 참여에서 사람과 사물 사이의 거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감정적 정서가 장소와 긴밀히 결합된 것이라고 하였다.²⁷ 또한 존 어리는 ‘행동 유도(affordance)’개념을 통해서 ‘환경과 유기체’의 관계에 대해서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행동 유도’ 개념은 사람과 사물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특히 중요하다. 행동 유도는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이고 환경과 유기체의 일부이다. 행동 유도는 특정한 세계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한 감각적 이동을 통한 환경과 유기체의 상호 관계로부터 나온다고 봤다.

『토지』에서는 2부에서 최서희와 길상이 간도 용정으로 갔을 때, 서울에서는 임역관, 유씨와 임명빈 등의 삶에 대해, 진주에서는 연홍, 권봉득, 기화의 삶의 이야기를, 평사리에서는 마당쇠 일가의 이야기를, 지리산에서는 김환, 강쇠네 등의 이야기를 같은 시기에 각각 서로 다른 장소 즉 ‘로컬리티’ 상황에서 당시 식민지 시대에 우리 민족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생명존중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작품 속의 한 장면에서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평등하고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도 각기 다른 성정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²⁸

한 마리의 피꼬리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는, 날개 다친 벌을 위해 슬퍼하던 길상도 매일 여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치 같은 생명조차 각기 다른 성격이 있어서 아주 지독하게 반항하는 놈은 목을 비틀 수밖에 없었다. 지렁이를 꼬챙이로 자를 때도 길상의 손끝에는 생명의 꿈틀거림이 전해졌다. (...중략...) 이튿날도 비가 내렸다. 길상은 여관 뜰에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피꼬리 새끼의 죽음을 생각한다. 어제부터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피꼬리 새끼를 위해 여치의 목을 비틀어 죽인 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경우에도 약육강식의 원칙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해치는 이기심이나? 아니다. 그러면 선택이나?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한 생명을 위해 다른 생명을 해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원한 우주의 비밀이나? (『토지』2부 1권, 70~74쪽.)

모빌리티 생태인문학, 서울: 엘피, 187.

27 Urry, J., 강현수·이희상 옮김(2014), 앞의 책, 45.

28 이명희·정영란(2020). 앞의 책, 36.

이러한 서술에서 작가는 ‘여치 같은 생명조차 각기 다른 성격이 있어서~’의 서술처럼 아무리 하찮은 미물에게라도 각기 다른 성정이 있다고 하였다.²⁹ 이러한 자연관은 동학당의 활동 서술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동학에서는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은 천지만물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은 한 몸’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환경과 유기체와의 상호 관계를 보려고 한 존 어리의 ‘행동 유도(affordance)’ 개념은 『토지』라는 문학 작품 속에서 동학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에서 상호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천지만물을 떠나서 내가 있겠는가 정을 떠나서 내가 있었겠는가. 정이란 생명을 이루게 하는 것이오. 부부의 근원은 생명을 탄생하게 하고 그 생명을 이루게 함이니 미세한 벌레도 생명을 낳게 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곳에 알을 까고 초목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꽃을 피우며 나비를 부를 뿐만 아니라 땅 속의 진기를 숨가쁘게 빨아올려 열매를 이루에 함이니 만물의 생사는 더불어 사는 것, 더불어 있다 함은 정으로 엮여졌다. 정이 물(物)을 다스리고 정이 물로 향할 때 물에도 생명을 부여할 수 있으나 물이 정을 침범하고 다스리려 들 적에는 생명이 깨어져, 만물의 특성이 깨어지고 인성도 깨어지고 더불어 있을 수도 없거니와 천지만물은 서로 떠나서 나도 없게 되고 천지만물도 없게 되는 것, 좁게 보고 좁게 생각지 마시오. (『토지』 4부 14권, 330쪽.)

『토지』라는 작품 속에 나타난 자연관과 존 어리가 주장한 ‘행동 유도(affordance)’에 의한 모빌리티적 요소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위 서술에서 ‘만물의 생사는 더불어 사는 것’, ‘천지만물은 서로 떠나서 나도 없게 되고 천지만물도 없게 되는 것’이라는 서술 부분은 인간과 자연은 본디 하나이고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존 어리의 모빌리티적 요소인 환경과 유기체와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³⁰

29 박경리는 『토지』를 집필하면서 청계천 복원 사업과 4대강 개발 사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자연과 삶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작품 전체에서 나타내고 있다.

30 자연관과 관련하여 동학당의 말은 『청소년 토지』에는 20권을 12권으로 재구성하면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가의 자연관 그리고 그 속에 내포된 생명존중의 사상이 우리 민족의 삶의 하나이고 이는 존 어리가 주장한 모빌리티적 요소가 연결이 되기에 완간본에서 찾아서 추가하였다.

4. 마무리와 과제

지금까지 존 어리의 모빌리티에 대한 네 가지 의미와 패러다임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토지』라는 문학 작품을 주인공 최서희의 이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토지』에 나타난 주인공 최서희가 ‘역사적 사건’에 따른 이동 그리고 그 이동을 통해 드러난 모빌리티적 요소를 작품 속 중요 장면의 서술과 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역사적 사건과 다양한 장소의 이동, 즉 존 어리가 말하는 ‘모빌리티(Mobility)’는 단순한 이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동하는 대상이 있고 이동하는 주체가 있다면 상호관계를 통해 모빌리티의 전환을 이루게 되는 이동을 의미한다.

또한 주인공 최서희를 중심으로 등장인물들을 형상화하고, 의식의 변화 그리고 등장인물 간의 복합적 관계와 감정의 교차 등이 어떻게 모빌리티적 요소와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중요 장면의 서술과 대화를 통해 밝혔다. 마지막으로 존 어리의 모빌리티적 패러다임의 특징 중 하나인 행동 유도(affordance)와 이-푸 투안(Yi-Fu-Tuan)의 토포필리아(topophilia)와의 관계를 토대로 ‘생명 의식’의 존중이 자연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작가의 자연관과 근본적으로 내포된 의미인 ‘모든 것은 한 몸’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과 관점이 『토지』라는 작품에서 여치의 모습을 보는 장면의 서술에서, 동학의 사상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자연관과 존 어리의 모빌리티적 요소와의 관계성을 밝혔다.

지금까지 존 어리의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시도는 없었다. 그런 면에서 모빌리티 개념과 의미,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특징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새롭게 분석해 보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모빌리티의 의미와 패러다임을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를 대상으로 ‘이동’에 대한 확장 해석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또한 한말부터 1945년까지 우리 민족이 국경을 넘나드는 고단한 삶의 이동에서 어떻게 당시의 현실을 이겨내고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지켜나갔는지도 존 어리가 주장한 모빌리티적 패러다임의 전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존 어리의 모빌리티의 네 가지 의미와 패러다임을 토대로 『토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첫째, 이전에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로, 문학 작품을 모빌리티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존 어리의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좀 더 새로운 시도로, 문학 작품 자체의 분석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테크놀로지의 시대에 살아가는 현실에서 ‘모빌리티 전환’의 관점으로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구한말부

터 식민지 시대를 거쳐 광복의 순간까지 역사적 사건에 따른 이동 그리고 그 이동을 통해 드러난 존 어리의 모빌리티적 요소가 문학 작품에서 주인공 최서희의 이동 장면에 대한 다양한 서술과 대화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찾아 밝혔다. 셋째, 『토지』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형상화 그리고 의식의 변화, 등장인물 간의 복합적 관계와 감정의 교차 등이 문학 작품에서 주인공 최서희를 중심으로 모빌리티적 요소와 어떻게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중요 장면의 서술과 대화를 찾아 밝혔다.

넷째, 『토지』의 전체에 나타나 있는 ‘생명 의식’ 존중의 자연관이 당시 고단한 삶의 이동에서도 어떻게 현실을 극복하게 됐는지를 주요 장면 서술에서 찾아 밝혔다. 특히 ‘천지만물은 서로 떠나서 나도 없게 되고 천지만물도 없게 되는 것’이라는 서술 부분이 인간과 자연은 본디 하나이고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푸 투안(Yi-Fu-Tuan)의 토포필리아(topophilia)와 존 어리의 토지에 대한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하나인 행동 유도(affordance)와 어떻게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주요 장면 서술을 통해 밝혔다. 다섯째, 『토지』의 자연관에 근본적으로 내포된 의미인 ‘모든 것은 한 몸’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이 모빌리티적 관점에서 바라본 환경과 유기체와의 관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주요 장면 서술을 통해 연관성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토지』 작품 속 동학사상에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하찮은 미물도 그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과 자연은 결국 한 몸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시 일제의 박해와 전염병이라는 환경을 넘어 더 나은 삶을 향해 끊임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이 존 어리가 주장하는 모빌리티 요소의 하나임을 밝혔다.

앞으로도 존 어리의 모빌리티(Mobility)의 개념과 의미, 패러다임, 패러다임의 전환 등을 토대로 문학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해 가는 시도들이 꾸준히 있어야 하겠다. 특히 남북 관련 작품들을 분석하고 하나의 민족으로 나가는 길들을 모빌리티의 진경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학 작품 속에서 모색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존 어리의 모빌리티(Mobility)의 네 가지 의미와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13가지 특징을 토대로 단순한 남북한의 왕래가 아닌 복합적이면서도 다양한 이동의 의미와 다양한 장소(로컬리티)와 다양한 시스템에서 개인 한 명 한 명은 어떻게 살아가며, 그것을 위해 남북한의 모든 민족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받아들여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모빌리티(Mobility)의 개념과 의미’를 보다 더 깊이 있게 분석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꾸준히 있어야 하겠다.

【REFERENCES】

- Park, Kyong-ri (1994). *Togi(土地)*. Seoul: Sol Publishing.
- Kim, Chi-su (1982). *Park, Kyong-ri wa Lee, Chong-jun*, Seoul: MunhakkwaChisongsa.
- Yi, Myoung-hee & Chung, Young-Lan (2020). *Mobility Humanities Engagement*, Seoul: LPPublishing.
- Lee, Min-ju (2016). “Mobility, a New Paradigm Reading Societies,” *The Journal Of Localttology* 15, 343-351.
- Woo, Yeon-hee (2018). “Mobility and Movement of Peoples,” *Korean Journal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79, 269-286.
- Lee, Yong-Gyun (2015). “Geographical Implication on the Construction and Practice of Mobility,”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8, 147-159.
- Lee, Hee-sang (trans.), John Urry(2016). *Mobilities*, Seoul: CommunicationBooks.
- Choung, Eun-hye (2020). “Pyohaerok of Choi Boo Viewed From Mobility Lens,” *The Journal Of Humanities*, 449-481.
- Tim Cresswell (2012). *Place: A short introduction*, Seoul: SigmaPress.
- John Urry (2014). *Mobilities*, Seoul: acanet.
- Yi-fu Tuan (1995). *Space and place*, Seoul: Daeyoon.

모빌리티(Mobility)적 관점을 적용한 한국 현대소설의 분석 - 박경리의 『토지』를 중심으로

박명수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강사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박경리의 소설 『토지』는 1897년 추석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는 장면까지의 한국 현대사를 기술하고 있어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하동 평사리에서부터 간도-진주-서울(경성)-다시 평사리로 돌아오는 모빌리티적 흐름으로 ‘장소의 이동’을 통하여 등장인물의 삶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장소와 상황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복합적 관계, 감정과 의식의 변화 등을 다루고 있어 이에 주목하여 모빌리티적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연구 방법 박경리의 소설을 분석하기 위해서 존 어리의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관점을 적용해 보았다. 특히 구한말에서부터 1945년 해방을 맞이까지의 소설에서의 형상화와 관련하여 ‘모빌리티 패러다임 및 관점’을 통해서 다양하게 해석하며 분석해 보았다.

결론 박경리의 소설 『토지』를 모빌리티의 관점과 방법론에 의거하여 분석한 결과, 주인공 최서희가 ‘역사적 사건’에 따른 이동 그리고 그 이동을 통해 드러난 모빌리티적 요소, 주인공 최서희를 중심으로 등장인물들의 형상화, 의식의 변화, 등장인물 간의 복합적 관계와 감정의 교차 등이 모빌리티적 요소, 더 나아가 『토지』의 생명 의식 또한 모빌리티적 요소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핵심어 모빌리티, 장소, 복합적 관계, 등장인물의 형상화, 생명 의식, 자연관, 박경리, 토지

이 논문은 2022년 6월 30일에 투고 완료 되어

2022년 7월 15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8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